

“아이고, 제우스님! 거긴 제 수비 구역이지요! 뒤는 제가 맡을 테니 과감하게 스매시 넣으세요!”  
“하하, 미안합니다! 레이디 퍼스트를 외친다는 게 그만 공에 눈이 멀어 그만 실수를 했군요!”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위치한 ‘파워탁구장’의 오전 무렵은 그야말로 작은 올림픽 경기장을 방불케 한다. 둥근 탁구대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핑계 없는 아우성과 유쾌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곳은, 지난 10여 년간 나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 준 소중한 삶의 체육관이다. 은퇴 이후 혹은 고된 일과를 마친 후 모여든 30여 명의 남녀 회원들에게 이 공간은 단순한 운동 시설을 넘어, 우리 사회가 그토록 갈구하는 ‘가장 진화된 양성평등의 생생한 실천장’이자 소통의 광장이다.

탁구의 꽃은 단연 남녀가 한 팀을 이루어 호흡을 맞추는 ‘혼합복식’이다. 혼합복식은 세상 그 어떤 스포츠보다 오묘한 조화의 예술이다. 남자 혼자 아무리 힘이 좋아 강한 공격을 퍼부어도 이길 수 없고, 여자 혼자 아무리 수비가 견고해도 파트너의 뒷받침이 없으면 승리할 수 없다. 파워탁구장의 회원들은 매일 오전 이 좁은 탁구대 앞에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며 ‘환상의 복식조’로 거듭난다.

물론 처음부터 이토록 자연스러운 평등과 조화가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다. 초창기만 해도 우리 안에는 은근한 고정관념이 파리를 틀고 있었다. “남자가 서브를 묵직하게 넣어야지”, “여자는 수비나 철저히 받쳐주면 돼”라는 식의 무심코 내뱉는 말들 속에는 성별에 따른 역할의 구분이 당연시되곤 했다. 하지만 둥근 백색 공이 네트를 넘나드는 순간, 그러한 편견은 설 자리를 잃고 만다. 번개 같은 스매시를 날리는 여성 회원의 매서운 손목 스냅에 남성 회원들이 허를 찔러 찔쩍매고, 묵묵히 뒤를 받쳐주는 섬세한 디펜스로 남성 파트너의 공격 본능을 살려주는 여성 회원들의 노련함 속에서 ‘남녀 역할의 고정관념’은 스르륵 무너져 내렸다.

기억에 생생한 에피소드가 있다. 우리 클럽의 소문난 잉꼬부부이자 복식 파트너인 김 시니어와 이 여사(가칭)의 경기였다. 평소 집에서는 가사 분담이나 일상 소소한 일을 두고 티격태격하던 두 사람이었지만, 일단 탁구대 앞에만 서면 공수의 호흡이 영화 속 히어로들처럼 완벽해진다. 하루는 남편이 상대의 강공을 받아치려다 범실을 하자, 아내가 특유의 재치 있는 농담을 던졌다.

“여보! 집에서는 내가 당신 살림살이 조율하지만, 이 탁구대에선 내 서브 리시브를 똑바로 받아야 살아남아요!”

그 한마디에 탁구장 전체가 자지러지는 웃음바다가 되었다. 그 웃음 속에는 권위나 성별의 차이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다. 오직 상호에 대한 깊은 존중과 배려, 그리고 수평적 관계의 아름다움이 진하게 배어날 뿐이었다. 남편은 멧쩍은 듯 라켓으로 머리를 긁적이면서도 아내의 리시브 위치에 맞춰 재빨리 자리를 양보하며 환한 미소로 화답했다.

우리는 흔히 양성평등이나 성평등이라고 하면 거창한 법적 제도, 국회의 장관 선언문, 혹은 거대한 사회적 캠페인 같은 것을 떠올린다. 그러나 진정한 평등은 회의실이나 책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땀방울이 맺히는 삶의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체화될 때 비로소 진짜

생명력을 갖는다. 파워탁구장에서 우리는 서로의 실수를 따뜻한 미소와 격려로 덮어주고, 멋진 랠리 끝에 득점했을 때는 마주 보며 하이파이브를 나눈다. “너와 내가 함께 만들어낸 멋진 합작품”이라며 서로를 치켜세우는 그 짧은 순간순간이 모여 진정한 평등의 문화가 완성되는 것이다.

남녀의 신체적 차이나 성별의 특성은 경기를 더 다채롭고 풍성하게 만드는 양념일 뿐, 결코 상하관계나 역할의 제한을 두는 장벽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몸으로 깨닫고 있다. 누군가는 설거지를 하고 누군가는 돈을 벌어야 한다는 식의 이분법적 사고는, 설 새 없이 공을 주고받는 혼합복식 경기 앞에서는 그저 낡은 유물에 불과하다. 공격할 때가 있으면 방어할 때가 있고, 앞에서 리드하는 사람이 있으면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는 사람이 있는 법이다.

세상이라는 더 큰 탁구대 위에서도 삶의 이치는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사회라는 거대한 네트 너머에서 날아오는 날카로운 삶의 공을 맞받아칠 때, 혼자서 모든 것을 독점하려 하기보다는 파트너의 거친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서 자리를 양보하는 지혜. 그것이 바로 우리 파워탁구장 식구들이 지난 10여 년간 땀 흘리며 라켓을 휘두르며 터득한 평등의 진정한 의미다.

오늘도 파워탁구장에는 “자, 이번 판은 레이디 퍼스트! 멋진 서브 부탁드립니다!”라는 유쾌한 외침이 청량한 메아리처럼 울려 퍼진다. 둥근 백색 공이 네트를 가볍게 넘나들 때마다, 우리들의 일상 속 양성평등 역시 멋진 스핀을 먹으며 행복하게 날아오른다. 탁구대 위에서 피어나는 이 유쾌하고도 아름다운 평등의 실천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까지 경쾌한 에너지를 전파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본다.



< 관련 사진 >